

yeong yang

WEB CONTENTS

가장 
자연적인
영양

2024년 04월 27일 17시 08분

ë¸©ì	2
자유게시판	3
한국관광공사 추천 5월에 가볼만한 곳 - 대티골[데일리안]	3

눈부시게 푸르름을 맛보다, 경북 영양 대티골

위치 : 경북 영양군 일월면 용화2리

봄이 절정에 달하는 5월엔 자연도 사람도 활짝 기지개를 편다. 연중 어느 때보다 아름다운 초록이 온 산 가득하고, 꽃들도 지천으로 피어난다. 들녘도 예외가 아니다. 봄은 **황토**에서 움터 올라온 파란 새싹들이 빈틈 하나 없이 푸르름을 발산하는 것. 그래서인지 문장가들은 5월의 아름다움을 저마다의 감성으로 기록했다. 그중 경북 영양군의 봄 풍경이 눈에 보이듯 담겨있는 시가 있다. 김영랑의 <오월>이다.

“들길은 마을에 들자 붉어지고 / 마을 골목은 들로 내려서자 푸르러졌다. / 바람은 넘실 천(千) 이랑 만(萬) 이랑 / 이랑 이랑 햇빛이 갈라지고 / 보리도 허리통이 부끄럽게 드러났다. / 꾀꼬리는 엽태 혼자 날아 볼 줄 모르나니 / 암컷이라 쫓길 뿐 / 수놈이라 쫓을 뿐 / 황금빛 난 길이 어지럽 뿐 / 앓은 단장하고 야망 가득 차 있는 / 산봉우리아, 오늘밤 너 어디로 가 버리련?”

경북 영양군은 5월의 향기를 듬뿍 담은 고장이다. 자연이 키워낸 영양군의 봄 향기는 ‘초록빛’이다. 자연이 길러낸 다양한 초록이 산과 들을 채우고 있다. 눈 닿는 곳 어디나 초록을 가진 영양군이지만 으뜸은 해발 1,219m의 일월산이다. 수많은 초록빛이 담긴 일월산에는 그 초록에 기댄 사는 사람들이 있다. 일월면 용화리 대티골사람들이다.

대티골은 일자봉(1,219m)과 월자봉(1,205m)의 북동사면과 장군봉(1,139m)의 남사면이 만나 이루는 계곡에 자리하고 있다. 해발 450~600m에 생긴 마을이다 보니 기온의 일교차도 크고 햇볕이 내리쬐는 시간도 짧다. 그렇다고 해서 마을이 어둡다는 것은 아니다. 아침 햇살이 계곡 깊숙이까지 따스함을 전해주기 때문이다.

마을 사람들은 이 햇살과 함께 움직인다. 이른 아침부터 산비탈을 개간해 만든 밭에 나가 산마늘, 두메부추, 전호, 눈개승마(삼나물), 섬초롱, 쑥부쟁이, 미역취 등의 산나물 등 농작물을 가꾼다. 그중에서도 도시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것은 명이나물이라 알려진 산마늘이다. 산마늘은 **울릉도특산품**으로 더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제는 대티골 산마늘도 꽤 **이름**을 내고 있다고.

마을사람들이 조금씩 뜯어먹던 산마늘을 본격적으로 작목반을 만들어 농사짓기 시작한 것은 2006년부터이다. 이제는 산마늘 재배면적만 약 7천 평에 달한다고, 영양고추가 자라던 고추 밭이 산마늘 밭으로 변화한 것이다. 그 안에 자라는 산마늘 모종만도 약 300만 포기나 된다고.



javascript:photoSize2(>)

◇ 영양 산나물축제 © 영양군청

<SCRIPT type=text/javascript >

</SCRIPT >

마을사람들은 산마늘을 단순히 잎으로만 판매하지 않고 소비를 확대시켜가고자 노력한다. 산마늘 **호소**, 산마늘 **김치** 등 먹는 법을 다양하게 개발하는 까닭이다. 산마늘 김치의 경우 **유산균**이 **배추김치**보다 약 4배나 많다고. 마을 안에 자리한 풀누리교육농장을 찾으면 온가족이 함께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다. 계절의 변화에 따라 월별로 이루어지는 체험이 모두 다른 것이 특징이다. 5월의 체험은 산딸기잼 만들기와 들꽃화분 만들기다.

대티골에는 가족이 함께 걸을 수 있는 아름다운 숲길이 있다. 숲속으로 7km 정도 이어지는 이 길은 가파르지 않고 완만해 어른 아이 모두 걷기 편안하다. 길 가장자리에 핀 꽃과 **산야초**를 관찰하며 천천히 걸으면 3시간 30분 정도 소요된다. 길 중간 중간에 쉬어갈 수 있는 **니문**의자가 놓여있으니 산길을 오르기 전, 마실 물과 약간의 간식을 준비해가는 것이 좋다.

길은 봉화에서 영양을 오가던 옛 국도길, 옛 국도길에서 마을로 이어지는 철발길에서 마을로 이어지는 옛 마을길과 대티골로 이루어진다. 길의 시작점은 윗대티골 입구이다. 그곳에서 옛 국도길로 들어서면 곧게 뻗어 오르 금강소나무가 바키다. 이 길은 옛 국도였음을 알 수 있는 흔적이 <http://www.yyg.go.kr>

남아있지 않다. 국도라면, 아니 도로라면 당연히 되어있어야 할 포장도 없고, 그저 흙길을 넓고
완만하게 다듬어 놓았을 뿐이다.

길 중간쯤 서있는 '영양 28km'라 쓰인 낡은 표지판이 아니라면 그저 평범한 임도와 다를 바 없
다. 하지만 낡은 표지판은 이 길의 의미를 바꿔놓는다. 그저 어디론가 오가던 길이 아닌, 역사가
담긴, 많은 이야기가 담긴 길임을 생각 들게 한다. 그래서인지 마을사람들은 이 길에 정성을 들
인다. 사람들이 다니기 편하도록 길을 고르고, 길 가장자리에 돌담을 만들어 두었다. 마을을 찾
은 이들이 길을 걸으며 작은 돌 하나를 얻으면 그들의 추억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배려한 공간
이다.



javascript:photoSize3();>

◇대티골-반변천의 발원인 뿌리샘 © 한은희

<SCRIPT type=text/javascript >

</SCRIPT >

옛 국도길이 끝나는 부분에서 칠발길이 시작된다. 마을에서는 이 길에 치유의 공간을 만들 예정
이다. 숲 속에서 자신을 정화하고 진정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칠발길에서 마
을로 내려오는 옛 마을길은 계곡을 따라 이어진다.

이 길에 일월산에서 발원해 영양군을 지나 낙동강으로 합류하는 반변천의 발원지인 뿌리샘이
있다. 작은 동굴 안에서 흘러나오는 샘물은 얼마 흐르지 않아 곧 수량 풍부한 계곡을 이룬다.
이는 일월산에서 흘러내린 물이 계곡으로 스며들기 때문이라고. 계곡 가장자리로는 좁은 길이
이어진다. 어린아이와 노인을 동반할 때는 조심해서 걸어야 한다.

용화리 마을 입구에는 일월산자생화공원이 자리하고 있다. 공원 안쪽에 절벽처럼 서있는 것은
일본강점기에 만들어진 선광장시설이다. 1930년대부터 일월산광산에서 채굴한 광물들을 제
련하던 공간이다. 이후, 방치된 것을 2001년 영양군이 오염원을 밀봉, 매립하고 흙을 부어 공
원으로 만들었다. 이곳에서 일월산과 그 주변에서 자라는 자생야생화인 금낭화, 구절초, 원추
리, 벌개미취, 할미꽃, 하늘말나리 등을 볼 수 있다. 근처에 영양출신의 시인인 조지호의 시비도
있으니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일월산자생화공원을 지나자마자 오른쪽으로 통일산라시대의 석탑으로 추정되는 용화리삼층석
탑이 있으니 살펴보자. 그다음 공간은 버스 정류장에 만들어진 대티골자연치유생태마을이라는
작품이다. 낡아서 버려진 농기구를 재활용해 만든 것으로 보는 이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이밖에도 영양군에는 볼거리가 많다. 입암면 신구리 선바위관광지에 자리한 분재수석야생화전
시관은 꼭 둘러보아야 할 공간이다. 지금까지 돌아본 영양의 숲과 꽃은 자연이 길러준 것이라면
이곳의 분재들은 사람의 손길이 닿아 아름답게 완성된 것이기 때문이다. 영양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폭포석 수석도 볼거리이다. 전시관 건너편에 자리한 영양고추홍보전시관에도 잠시 둘러보
자. 고추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는 공간이다.

선바위관광지에서 그리 멀지 않은 입암면 산해리에 봉감모전오층석탑이 있다. 통일신라 초기에
만들어진 이 탑은 돌을 **벽돌모양**으로 깎은 후 차곡차곡 쌓아 만들었다. 국보 제187호로 그 모
습이 위풍당당하다.[데일리안 여행 = 정현규 객원기자]

<당일여행코스>

도보여행 / 일월산자생화공원 → 용화리삼층석탑 → 워대티 아름다운 숲길 → 반변천발원지 →
대티골
녹색문화여행 / 봉감모전오층석탑 → 서석지 → 선바위관광지(분재수석야생화전시관) → 대티
골

<1박2일 여행코스>

첫째날 / 봉감모전오층석탑 → 서석지 → 선바위관광지(영양분재수석야생화전시관) → 영양산

ì·ì·ì·ì·èμ°ì²(http://www.yyg.go.kr)

촌생활막돌반 → 내티골(죽막)
돌깨날 / 윗대티 아름다운 숲길 걷기 → 반변천밭원지 → 산나물채취 → 용화리삼층석탑 → 일
월산자생화공원

<여행정보>

○ 관련 [웹사이트](#) 주소

- 영양군문화관광과 : <http://tour.yyg.go.kr>

- 대티골 : <http://www.daetigol.com>

목록

수정

삭제

글쓰기

Copyright © Yeongyang-gun. All Rights Reserved.

Yeong Yang
WEB CONTENTS

